

신선사상(神仙思想)에 대한 소고

朱賢哲*

目次	
I. 서론	IV. 대순사상의 신선사상
II. 중국의 신선사상	1. 인간개조
1. 산악신앙	1)타력적 방법
2. 신선도(神仙道)	2)자력적 방법
III. 한국의 신선사상	2. 지상신선실현
1. 신선사상의 본류(本流) 문제	1) 신인조화의 경지
2. 신선사상의 조류(潮流)	2) 도통의 경지
	V. 결론

I. 서론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념이다. 인간은 이러한 숙명에서 벗어나 무병장수(無病長壽)하기를 바라고, 그 소망이 확대되어 불로장생(不老長生)을 갈구하는 신선사상(神仙思想)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신선사상은 중국에서 주로 제왕이나 제후 등 현세적인 권력과 쾌락의 영속을 바라는 상류계층에서 시작되어 차츰 서민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신선을 갈구하여 불로장생을 위해 불로초를 찾아 해매거나 신약(神藥)을 제조하여 복용하다가 목숨을 잃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신선사상은 주로 상고시대(上古時代)에 민족형성이나 건국과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민족과 사회 등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 문학 박사

그러나 신선사상의 본류(本流)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신선사상이 우리나라의 상고시대에 발생하여 중국에 전파되었다는 설(說)과 중국에서 유입되었다는 설(說), 그리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전해진 후 체계화되어 한국으로 다시 유입되었다는 설(說)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의 신선사상을 논하는 장(章)에서 신선사상의 시대적 조류(潮流)와 함께 상세히 다루어질 것이다.

대순사상의 신선사상은 인간개조(人間改造)를 통한 지상신선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순사상의 신선사상은 도교나 그 밖의 신선사상과는 차이가 있다. 이 장(章)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을 중심으로, 대순사상의 신선사상에 나타난 독창성을 찾아 여타의 신선사상과 차별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먼저 인간개조를 위한 방법으로서 타력적 방법과 자력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 지상신선은 신인조화를 이룬 존재와 도통한 존재를 지칭하기 때문에, 지상신선실현은 신인조화의 경지와 도통의 경지를 의미한다는 취지에서 본고(本稿)를 전개하였다.

II. 중국의 신선사상

중국인들은 예로부터 불로불사(不老不死)의 신선(神仙)을 동경하였으므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신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이러한 신선이 되기 위한 실천도(實踐道)를 신선도(神仙道)라 하는데, 원래 신선도는 신선이 가지고 있는 불사(不死)의 신약(神藥)을 복용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신약이란 신의 약이라는 의미로 인간이 만들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사람들은 신선이 존재하며 신선이 신약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신선을 찾고자했으며, 신선도를 설(說)하는 사람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신선도를 설하는 사람들은 방술사(方術士, 方士라고도 함)라 불리던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신선방사(神仙方士)라 불려졌다. 신선방사들 중에는 신선설에 따라 신약을 찾으러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황제의 명에 따라 방술(方術)을 행했다가 효과가 없어 처형당한 사람도 있었다. 이러한 불사에 대한 열망은 특히 중국의 진(秦)·한(漢)의 황제들에

의해 끊임없이 추구되었으며, 당대(唐代)에 이르러서는 황제가 단약(丹藥, 신선이 되는 약)을 먹고 중독되어 죽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렇게 신선도 중에서 극약을 복용하는 것을 금단도(金丹道)라 하는데, 이것은 불멸의 황금을 복용하면 불사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에서 발생한 것이다. 신선도에는 금단도와 같은 위험한 방법이 있는 반면 선약(仙藥)과 같이 후에 본초학(本草學)에 영향을 주어 한방의학의 발전을 촉진시킨 경우도 있다.

1. 산악신앙

중국의 신선사상은 산악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마천(司馬遷)이 저술한 『사기(史記)』 봉선서(封禪書)를 보면, 제(齊)의 위왕(威王)과 선왕(宣王) 또는 연(燕)의 소왕(昭王) 무렵부터 동해 가운데에 있는 삼신산(三神山), 즉 봉래산(蓬萊山)·방장산(方丈山)·영주산(瀛洲山)을 찾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삼신산은 발해 가운데 있는데, 인간세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인간이 가까이 가면 바람을 일으켜 배를 멀리 떠내려가게 했다고 한다. 일찍이 이 산에 가 본 사람의 말을 빌면, 이곳에는 많은 선인(仙人)과 불사의 약이 있다고 전한다. 그런데 불사의 약은 신의 약이기 때문에,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불사의 약을 신약이라고 했다. 이렇게 『사기』에 의하면, 불사약을 찾고 복용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4세기부터 3세기 무렵이며, 발해 가운데에는 삼신산이 있으며, 이곳에 불사의 약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제(齊)와 연(燕)은 오늘날의 산둥반도(山東半島)를 중심으로 하는 발해만 연안지방의 나라들이다.

그러나 신선사상은 삼신산설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기원전 3세기 무렵에 저술된 『장자(莊子)』를 보면, “막고야(藐姑射)의 산에 신인(神人)이 살고 있는데, 피부는 얼음이나 눈처럼 희고, 부드러움은 처녀 같으며, 오곡을 먹지 않고, 바람과 이슬을 마시며, 구름을 타고 용을 몰아 사해의 바깥을 노닐고 있다”¹⁾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것은 신인이 삼신산이 아닌 막고야의 산에

1) 『莊子』, 「逍遙遊」

“藐姑射之山有神人居焉 肌膚若冰雪 淖約若處子 不食五穀 吸風飲露 乘雲氣 御飛龍 而遊乎四海之外”

살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또 곤륜산(崑崙山)이 신선사상과 결부되어 나타난다. 선진(先秦)시대에 쓰여진 『산해경(山海經)』 「해내서경(海內西經)」에 의하면, 곤륜허(崑崙墟)는 서북쪽에 있으며 천제(天帝)의 도읍인데 그곳에는 주수(珠樹), 문왕수(文王樹), 간기수(玕琪樹), 불사수(不死樹)가 있다고 전한다. 또 「海內經」에 의하면 유사(流沙)의 동쪽과 흑수(黑水)사이에 불사산(不死山)이라는 산이 있다고 전한다. 이 이외에도 『산해경』에서 불사(不死)와 관련된 여러 구절들을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곤륜허는 곤륜산을 말하며, 여신인 서왕모의 거처라고도 한다. 흑수(黑水)는 곤륜허의 서북쪽에서 흘러 나오는 강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산의 꼭대기에는 아홉 개의 문이 있으며, 개명수(開明獸)가 이 문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 호랑이를 닮은 이 개명수는 아홉 개의 머리를 갖고 있으며, 얼굴은 모두 사람의 모습을 하고서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²⁾

『회남자(淮南子)』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해경』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회남자』에 곤륜산은 “위에는 목화(木禾)가 있는데, 그 높이가 오십(五尋, 길이가 약 106cm)이다. 주수(珠樹), 옥수(玉樹), 선수(璇樹), 불사수(不死樹)가 그 서쪽에 있고, 사당(沙棠), 낭간(琅玕)은 그 동쪽에 있으며, 강수(絳樹)는 그 남쪽, 벽수(碧樹), 요수(瑤樹)는 그 북쪽에 있다. 또 그 곁에 사백 사십 개의 문이 있는데, 문사이의 거리가 4리(...), 또한 그 곁에 아홉 개의 정호(井戶)가 있다”³⁾고 전한다. 이렇게 곤륜산에 관한 표현은 『회남자』에서 더욱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회남자』는 곤륜산을 신선사상과 불사사상(不死思想)이 결부된 신산(神山)으로 확실하게 묘사하고 있다. “곤륜의 언덕에서 위로 올라가면 양풍산(涼風山)이 있는데, 그 곳에 올라가면 죽지 않는다. 또 그 위를 더 올라가면 현포산(懸圃山)이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가면 곧 영험해져서 풍우(風雨)를 부린다. 또 거기에서 위로 올라가면 상천(上天)이 있는데, 여기에 이르면 신이 된다. 이 곳을 태제(太帝)의 거처라 한다”⁴⁾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곤륜산 위에는 양풍

2) 酒井忠夫 外(崔俊植 옮김), 『道敎란 무엇인가』, 종교문화연구원종교학 총서 1(서울: 민족사 1990), 299쪽 참조

3) 『淮南子』, 「地形」

4) 앞의 책, 같은 곳

산이 있고, 그 위에는 현포산이 있으며, 또 그 위에는 상천이 있는데, 이 산에 오르면 불사(不死)·영(靈)·신(神)이 된다고 한다. 양풍, 현포, 상천으로 이어지는 계층은 각각의 선위(仙位)를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태제(太帝)의 거처'라는 말은 신들을 다스리는 최고신의 거처를 말한다. 곤륜산이 이 태제의 거처와 통해 있다는 사실은 확실히 이 산이 단순한 신산(神山)이 아니라 신산 중에서도 가장 신비롭고 영험한 산이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그런데 『회남자』를 보면, 『산해경』이나 다른 기록에서 볼 수 있는 서왕모의 거처로서의 곤륜산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아마 동방의 삼신산설에 대해 서방의 곤륜산설이 동서의 대립관념으로 정착될 무렵, 서방을 지배하는 신선으로서의 서왕모가 곤륜산과 합쳐졌기 때문일 것이다. 『회남자』에는 동서(東西)의 대립관념은 나타나 있지 않다.⁵⁾

기원전 1세기경 신선들의 거처로서 오악(五嶽)이 대두되기에 이른다고 당시 신선들이 왕래하던 대표적인 명산영지로 간주되던 오악이란 동악태산(東岳泰山, 산동성), 남악형산(南岳衡山, 호남성), 서악화산(西岳華山, 섬서성), 북악항산(北岳恒山, 산서성), 중악송산(中岳嵩山, 하남성) 등을 말하는데 이들 산들이 어떻게 오악으로 선택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신선사상(神仙思想)의 담지자인 방사(方士)들은 동해에 있다는 신선들의 거처나 서방에 있다는 선경(仙境)을 찾기 위해 무진 애를 썼지만 그곳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신선이 사는 동해나 서방에 대신할 만한 곳이 등장했는데, 그것이 바로 중국인들의 행동범위 내에 있는 중국본토의 명산영지인 오악이다. 이곳은 후에 신선이 거처하는 대표적인 영지로서 중국인의 산악신앙의 중심지가 된다. 오악 중에서 가장 늦게 확정된 것은 기원전 1세기경 이후에 오악에 포함된 남악형산이며, 그 밖의 네 산은 훨씬 전에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 오악이 도교만의 전통은 아니었다. 유교에서도 오악은 제사를 드리는 특별한 산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이다. 오악이 도교영지로서 국가로부터 공인된 것은 현종(玄宗) 때의 일이다.

도교에서는 오악이 신선의 거처이면서 동시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모이는 곳으로 믿어져 왔기 때문에, 명산영장(名山靈場)을 허술하게 취급하는 것

5) 酒井忠夫, 같은 책, 310-311쪽 참조

은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오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산은 동악태산인데, 이 산은 특별히 영혼의 집합지로 생각되어 왔다. 태산은 일반적으로 ‘泰山’으로 쓰지만 ‘太山’으로도 쓴다. 태산이 동악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그 위치가 동쪽에 있기 때문이며, 오악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방사들이 주장한 신선설과 봉선제(封禪祭)에 의한 것이다. 즉 진(秦)의 시황제와 한무제가 태산에서 봉선을 거행했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명산의 여러 신을 섬긴 진짜 이유는 그들의 수명을 연장시키려는 데 있었다.⁶⁾

2. 신선도(神仙道)

초기의 신선사상을 집대성해서 도교교학을 처음으로 체계화한 갈홍(葛洪, 283-343년)의 『포박자(抱朴子)』가 완성된 것은 동진(東晉)의 건무(建武) 원년(317년)의 일이다. 『포박자』 내편(內篇)은 신선(神仙)이 실재함을 역설하고 신선이 되기 위한 선약(仙藥) 제조법과 복용법 및 기타 장생(長生)을 가능하게 하는 보조적인 선술(仙術)을 20권에 걸쳐 상술한 것이다. 포박자가 설한 선약의 특색은 이른바 금단도(金丹道, 또는 금단술이라고도 함)이며, 이것은 환단(還丹), 금액(金液)의 약법으로 되어 있다. 환단이라는 것은 단사(丹砂)라고 부르는 주황색의 소화수은(硫化水銀)을 가열시킨 후 건조하여 만든 은색의 수은으로서 유황과 화합하게 되면 다시 유화수은이 되는 환원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 환단이라고 한다. 반면 금액이라는 것은 금이 높은 열로 인해 액화되더라도 다시 굳게 되면 아름다운 광택을 영구히 잃지 않는 불변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환원과 불변이라는 특성을 갖춘 두 개의 물질을 인체에 작용시켜서 육체의 노화를 방지하고 불로불사하는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발상에 근거를 둔 처방이 바로 금단도(金丹道)이다.⁷⁾

금단도는 도교에서 신선이 되어 불로장생하게 되는 최고로 영험한 약물로 받드는 금단을 연조하는 방법을 말한다. 금단이라는 명칭은 그러한 선약(仙

6) 앞의 책, 152-153쪽 참조

7) 앞의 책, 49-50쪽 참조

藥)을 연조하는 과정에서 다른 광물을 황금으로 변환하게 한다는 의미에서와, 때로는 직접 황금을 재료의 한 가지로 사용하는 데서 온 것이다. 단(丹)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금단의 주요한 재료가 단사(丹砂)인데 연유한다고 하겠으나 후에는 단이라는 말로 연조된 신비한 선약 자체를 가리키게 되었다. 금단을 연조하는 방법은 각종 도서(道書)에 번거롭게 전해지기는 하나 여러 가지 도술이 뒤섞여 있어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다. 금단을 연조하는 목적은 선약을 얻어 그것을 복용하여 신선이 되어서 불로장생하는 데 있다고 하겠으나, 거기에는 또 연금술(鍊金術)의 의미도 있어 대량의 황금을 얻어 지상의 복락을 누리려는 의도도 있었다.⁸⁾

도 홍경(陶弘景, 456-536년)은 도교사상을 조직적으로 체계화하여 종교철학으로 완성시켰다. 그는 도교학(道敎學)이라고 부르기에 걸맞은 조직체계를 갖춘 도교의 교리학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는 또한 도교의 대표적인 도사일뿐 아니라 스스로 혼천상(渾天象)을 만들기도 하고,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을 연구하여 한방의학에서는 약학의 아버지라고도 한다. 또 화학적 지식에도 정통하여 만년에는 열심히 연금술에 의한 금단(金丹)의 제조에도 고심했는데, 이 작업은 양(梁)의 무제(武帝)의 의뢰에 따른 실험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연금술이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만족할 만한 실험결과를 얻지 못한 것 같다. 그는 연금술을 성공시키지 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연단(鍊丹)을 유일한 수행(修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는 안마, 도인(導引) 등의 건강법에 의한 체조의 정비, 본초약물 등 식이법(食餌法)에 의한 적극적 체질의 개선, 수일정좌(守一靜坐)⁹⁾ 등 내관법(內觀法)에 의한 정신통

8) 車 柱環, 「金丹道」, 『道敎와 韓國思想』, 韓國道敎思想研究會 編, 亞細亞文化社, 1994, 183쪽 참조

9) 오두미도(五斗米道) 교단의 근본사상을 전하는 중요한 자료에는 『노자상이주(老子想爾注)』라는 경전이 있다. 이 경전은 오두미도 교단(天師道)을 창시한 개조장릉(張陵)의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실제로는 그의 손자인 張魯의 것, 혹은 그보다 후대의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노자상이주』는 오두미도 교단에서 『노자도덕경』을 해석한 것이다. 『노자상이주』에는 ‘수일(守一)’이라는 정좌법(靜坐法)이 나온다. 여기서 ‘一’은 곧 도(道)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一’은 본래 천지밖에 있지만 자유로이 천지 안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의 몸 속으로도 왕래한다고 한다. 이 ‘一’이 형체를 흩뜨리면 기(氣)가 되고 그 형체를 모으면 태상노군(太上老君)이 되어 곤륜산(崑崙山)에 상주하는 신이 되며, ‘허무(虛無)’, ‘자연(自然)’, ‘무명(無名)’ 등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그리고 태상노군은 도계(道誡)를 가지고 사람들을 교화하기 때문에 이 도계를 지

일의 실현 등, 진신(眞身)을 완성하기 위한 심신의 원만한 조화를 얻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등진은결(登眞隱訣)』을 저술 하였는데, 이것은 진인이 되기 위한 비결, 즉 득도의 비결을 설명한 경전이다. 득도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포박자(抱朴子)』에 나오는 금단의 제조복용이고 다른 하나는 내면적인 깨달음을 실행하는 수일법(守一法)이다. 『등진은결』은 이 수일의 실천을 체계적으로 완성한 경전이다.

금단도는 단사, 수은, 납 등의 외물(外物)을 통해 수명을 연장시키기 때문에 외단(外丹)이라 한다. 이러한 외단을 통한 수명 연장 방법은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금단의 독기로 병을 얻거나 생명을 상실하는 등의 역효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금단도를 본성적인 것으로 전환시켜, 수련을 통해 인체 내에 단을 이룩하려는 내단(內丹)의 방법을 개척하게 된다. 이 내단의 방법도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대체로 천지의 원기(元氣)를 체내에 흡수하여 인간생명의 기본이 되는 정(精)·기(氣)·신(神)을 보전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일종의 심신 단련을 위한 수련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도교에서 신선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선도는 금단도(外丹)와 수행도(內丹)가 있고, 또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잡다한 성격의 주술도 존재한다. 도교의 성립과정을 보면, 교리뿐만 아니라 의례(儀禮)를 살펴보아야 도교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도교의 의례는 크게 신선술적(神仙術的)인 것과 무축적(巫祝的)인 것으로 나누어진다. 신선술적인 것은 신선(神仙)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행법을 가리키는데, 금단(金丹)의 제조와 복용, 도의 체득을 목적으로 신들과의 교감을 행하는 수일(守一)·존사(存思, 신들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상상하는 수행법) 등과 같은 각종 명상법, 자신의 몸을 단정(丹鼎)으로 삼고 정(精)·신(神)·기(氣)를 세 가지 약(三藥)으로 삼아 단을 수련하는 내단설 등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무축적인 것은 이른바 부록재초(符籙齋醮)라고 부르는 것을 가리키는데, 재초와 같은 대규모의 의식이나 제사를 포함해서 치병, 구사(驅

키는 것 자체가 바로 ‘수일(守一)’하는 것이며 그 밖에 다른 수일의 방법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一’, 다시 말해 도의 형체가 모아진 것이 곤륜에 상주하는 신인 태상노군이라는 것이다.

邪), 기우, 액막이를 주된 목적으로 행하는 다양한 주술을 말한다. 이러한 두 종류의 의례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 의례들을 성립시키는 배경이 되는 세계관에는 도교의 독자적인 특성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전자(前者)의 의례는 스스로의 수행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후자(後者)와 같은 주술의례·제사 등은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행하는 것이다.

Ⅲ. 한국의 신선사상

1. 신선사상의 본류(本流) 문제

한국의 신선사상은 그 발생과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신선사상이 고조선시대에 성립되어 중국으로 확산되었다는 견해와 중국에서 유입되었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능화는 전자(前者)의 입장에서 서서 “우리 민족의 원시종교는 곧 신도와 선교뿐이었다. 나중에 유·불 양교가 들어오기는 하였어도 민간의 습성은 신도와 선교가 굳게 뿌리 박혀 있었으므로 오두미도(五斗米道)가 들어왔을 때에는 나라안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다투어 신봉하게 된 것이다”¹⁰⁾라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한국의 원시종교를 신도(神道)와 선교(仙敎)라고 규정하고 유교와 불교가 유입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것이다. 또 그는 삼신산(三神山)이 한국에 있으며 단군신화와 도교적 세계관과 유사성이 있다고 논증하고 있다.¹¹⁾

차 주환도 신선사상의 본류 문제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이 능화의 견해를 수용하고 있다. 그는 “한국 신선사상은 본래 한민족의 고유사상에서 추출된 것이고 또 많은 변천을 거쳐왔지만 오늘날까지 존속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도교와는 별도로 독립시켜서 다룰 수도 있는 형편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신선가의 전승에 따르면 신선도 내지 신선술은 본래 한민족에서 시작되었고, 그것이 중국에 전파되어 본래의 정신과는 크게 괴리된 미신과 잡술에 가까운 형태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시시비비는 보류한다고 하더라도 중국도교의 시원(始源)을 한

10) 이 능화(이 종은 역), 『조선도교사 역주』 (보성문화사, 1992), 53쪽

11) 앞의 책, 35쪽 참조

국 신선사상에서 구해야 한다는 견해가 견지되어온 이상 한국 신선사상을 도교적인 문화현상으로 받아들이고 고찰해야 할 충분한 의의는 있다고 하겠다”¹²⁾고 하였다. 그는 중국의 신선사상이 한국에서 건너갔으나 오히려 변질된 것이라는 독특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신선사상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건너간 것이라는 이 능화의 견해에 대해, 최 준식은 이러한 견해는 근거가 불충분하며 지나친 비약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그러나 그의 해석은 대부분 뚜렷한 증거가 없는 무리한 해석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대부분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단군의 할아버지인 환인이 도교의 최고신격으로 종종 간주되는 원시천존(元始天尊)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발해에 있다는 삼신산이 금강, 지리, 한라산과 같은 세 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태백산 즉 백두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환웅이 가져온 천부인 세 개가 『음부경』 3권(삼황내문)과 비슷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끝으로 단군이 신선이 되었다는 등의 예를 들면서 단군설화에 가장 가깝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외에도 진대(秦代)의 방사(方士)인 한종(韓終)이 삼한에 머무르고 서복(徐福)도 남해에 그 자취가 있다든가 노생(盧生) 역시 그 비기(秘記)를 가져간 나라가 해동이었다는 억측에 가까운 설을 주장하면서 한국도교 기원설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고유 종교의 하나인 도교가 사실은 한국에서 도래했다고 주장함으로써 한민족의 우수성을 과시하려는 시도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주장은 마치 요즈음의 국사 찾기 운동하는 분들의 주장 즉 공자도 노자도 심지어는 석가까지도 한민족이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본다”¹³⁾고 서술하고 있다. 그는 신선사상의 본류를 파악할 때, 명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해야지 감성에 기초한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은 오류이며 위험한 논리라는 입장이다. 신선사상은 그 본류(本流)가 한국이며, 한국에서 중국으로 전파되었다는 추론에는 무리가 있지만, 전적으로 모든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12) 車 柱環, 「韓國 道敎의 共同體觀」, 「道家思想과 韓國道敎」, 韓國道敎文化學會編, 國學資料院, 1997, 7쪽

13) 최 준식, 「이 능화의 조선도교사」, 「韓國道敎文化의 位相」, 韓國道敎思想研究會編, 亞細亞文化社, 1993, 293쪽

최 삼룡은 신선사상의 본류(本流)에 대한 상반적인 견해를 벗어나 절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는 선맥(仙脈)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선맥(仙脈)과 중국에서 넘어온 선맥(仙脈)이 있음을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선가(仙家)는 대체로 양분하여 구별지을 수 있다. 즉 중국의 도교가 정식으로 도입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선가로 단국신화를 비롯한 부족국가들의 시조신화들은 그 주인공이 선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으며 대체로 『청학집(靑鶴集)』에는 이런 선인들의 계보를 상고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나열하고 다음에는 통일신라시대 당의 종리권(鍾離權), 여동빈(呂洞賓)의 선류가 유당신라인(留唐新羅人)에 의하여 들어온 일맥이 한국에 유전(流傳)하여 내려온 자취를 엿볼 수 있으니 이 계보는 대체로 『해동전도록(海東傳道錄)』에 소재(所載)되어 있다.”¹⁴⁾

또 그는 두 가지 선맥(仙脈)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에서 발원하여 중국으로 건너갔다는 견해를 인정한다. 그러나 한국의 선도가 보다 근원적이며 중국의 그것은 변질된 것이라는 관점에 이의를 제기하고 양자는 그 뿌리가 공통된다고 보았다: “한국 고유의 선가(仙家)는 단순한 샤만(Shaman)은 아니었다. 대개 중국의 선가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필자의 소견으로는 그 근본은 같은 뿌리에서 갈라졌으며 후대 중국에 와서는 난세에 명철보신(明哲保身)하는 은둔적(隱遁的)이고 위아적(爲我的)인 처세철학으로서 변모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 혹자는 중국의 도선사상(道仙思想)에 이끌렸던 불우한 한국의 선비들이 우리의 원시적 신앙을 중국의 도선가(道仙家)에 견강부회(牽強附會)시켜 분식(紛飾)한 것이라 하여 우리 문헌에 기록된 상대(上代)의 선(仙)과 중국의 선(仙)은 전혀 그 의미가 별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그 맥(脈)을 함께 하고 있는 선교(仙敎)가 중국에서는 전국말(戰國末)의 연(燕)·제(齊)·진(秦) 등의 방사에 의해 영생불사(永生不死)하는 신선사상(神仙思想)으로 발전됨으로써 중국적인 선교(仙敎)로 바뀌어졌으나, 그 의미가 크게 변질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고대 중국에 있어서도 성군(聖君)이나 위대한 인물들이 문헌상에 선인(仙人)으로 지칭되었

14) 최 삼룡, 「仙人說話로 본 韓國固有의 仙家에 대한 研究」, 『道敎와 韓國思想』, 韓國道敎思想研究會 編, 亞細亞文化社, 1994, 373쪽

던 것은 중국이나 조선에 일찍부터 선사상(仙思想)이 지배하였다는 일단의 증거가 될 것이다.”¹⁵⁾ 선교(仙敎)에서 신선(神仙)은 이상적 존재이다. 선교는 본래 인격함양에 그 목적이 있었다. 선인(仙人)은 선도(仙道)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선(神仙)과는 그 의미가 달랐다. 그러나 전국시대(戰國時代) 방사(方士)에 의하여 발전된 신선사상은 선도의 목적을 신선이 되는 것에 두었으므로 연금술로 단약(丹藥)을 만들고 불로초가 있다는 삼신산을 찾으려고 하였던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한국 고대사상에 신선사상적 요소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후에 중국에서 체계화되어 전래된 신선사상과 맥(脈)을 같이 한다고 하기도 어려운 사실이다. 신선사상의 분류에 대한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 한국 고대사상이 지닌 고유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지만 논리적인 비약도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신선사상의 조류(潮流)

중국의 경우와 같이 한국의 신선사상도 산악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삼국유사』 등에 나오는 단군 설화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천상계의 통치자 환인(桓因)의 서자인 환웅(桓雄)은 도중 3천을 거느리고 천상으로부터 태백산정(太白山頂)의 신단수(神檀樹) 아래로 강림하여 신시(神市)를 건설하였다. 신단수나 신시처럼 앞에 ‘신(神)’자를 붙인 것은 환웅과 그가 거느린 도중이 지상의 인간들과 달리 장생불사(長生不死)하는 신선(神仙)이며, 그 세계가 천상세계와 지상세계를 연결해 주는 일종의 중간적인 신선세계(神仙世界)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환웅은 지상 응족(熊族)의 여인을 승격시켜 단군왕검(檀君王儉)을 낳게 해서 천상세계와 연결되는 지상의 통치자를 출현시킨 것이다. 단군은 태백산정의 신시에서 태어나 왕검이 된 이후 평양성(平壤城)에 도읍을 정하고 조선이라는 국호를 사용했으며, 아사달(阿斯達)로 천도하고 다시 장당경(藏唐京)으로 옮겼다가 아사달로 돌아갔다고 한다. 『청학집(靑鶴集)』¹⁶⁾에 따르면 단군이 아사달에 들어가 신선이 된

15) 앞의 책, 374쪽

16) 『靑鶴集』은 조선조(朝鮮朝) 선조(宣祖)~인조대(仁祖代)의 우류(羽流) 조여적(趙

뒤에 문박씨(文朴氏)라는 사람이 아사달에 살면서 단군의 도를 전했다고 한다. 또 『백악총설(白岳叢說)』¹⁷⁾에 의하면 환인과 환웅을 계승한 단군은 신선이 되었고, 그 교훈은 결청지학(潔淸之學)으로 요약되어 문박씨를 거쳐 신라의 영랑(永郎)에게 전해진다.

이러한 단군설화 이외에도 우리 고대의 여러 소국(小國)들의 건국설화에는 역시 창업주가 천제(天帝)와의 혈연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있는 예들이다. 『삼국유사』에 열거되어 있는 70여 개의 고국(古國) 가운데의 북부여(北夫餘) 동부여(東夫餘) 고구려(高句麗) 3국의 건국설화에는 천제(天帝) 내지 상제(上帝)와의 관련이 언급되어 있다. 북부여조(北夫餘條)에 인용된 『고기(古記)』에 의하면, 천제가 흘승골성(訖升骨城)에 내려와 도읍을 정하고 왕을 칭하고 해모수(解慕漱)라는 이름을 썼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해모수가 곧 천제라고 하겠다. 그런데 고구려조(高句麗條)에서는 해모수가 천제자(天帝子)라고 자칭하고 하백녀(河伯女)와 사통해서 동명왕(東明王) 주몽(朱蒙)이 탄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해모수가 천제의 아들이라고 하는 편이, 아무리 허황된 설화에서라 하더라도, 어울리고 전후의 줄거리가 일관성을 갖게 된다. 그런데 해모수의 아들 해부루(解夫婁)는 그후 북부여의 왕위를 계승했는데, 이번에는 상제의 명으로 북부여를 동명왕을 위해 비워 놓고 동부여로 옮겨 갔다는 것이다. 천제 내지 상제의 자손을 칭하고 상제의 명을 내세우고 하백녀와의 정사가 나오고 하는 것은 다 초민(初民)의 이적(異蹟)에 대한 순박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마는, 그래도 도교적인 채취를 느끼게 하는 사례들임에는 틀림이 없다.¹⁸⁾

신라시대에는 선풍(仙風)이 성행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단군에 의해서 전해진 환인 이래의 도를 문박씨를 통해 계승하였다는 영랑(永郎)은 술랑(述郎)·남랑(南郎)·안상(安詳) 등과 함께 신라 사선(四仙)으로 불린다. 영랑은 노우관(鵞羽冠)을 쓰고 철죽장(鐵竹杖)을 짚고 다녔는데, 90세가 되어서도 신색(神色)이 어린아이 같고 형색이 기괴하였다고 한다.¹⁹⁾ 여기서 알 수 있는

汝籍)이 저술한 선가서(仙家書)이다.

17) 『白岳叢說』은 이 능화(李能和)씨가 태백선인(太白仙人)으로부터 얻어 보았다는 서명(書名)

18) 車 柱環, 『韓國의 道教思想』(서울: 동화출판공사, 1986), 34-5참조

19) 『靑鶴集』, 『雲鶴先生事蹟』第 6則 참조

것은 영랑이 우리 고유의 선파(仙派)의 도맥(道脈)을 계승했다는 것이다. 중국이 아닌 우리 고유의 선풍(仙風)을 계승했다는 말이다.

화랑도(花郎道)와 신선사상의 관련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사선이 일으킨 선풍은 신라시대에 이르러 하나의 확고한 전통을 이루었다. 『삼국사기』에 화랑을 설명하기 위해 인용한 최 치원의 「난랑비서(鸞郎碑序)」 첫머리에 신라에는 오묘한 도가 있어 그것을 풍류(風流)라 하는데, 그 가르침을 마련한 근원은 『선사(仙史)』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 나온다. 지금은 이 책이 전해지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화랑도(花郎道)는 이 풍류도(風流道)와 상통하거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²⁰⁾ 이 풍류도는 신라선풍을 이어받은 화랑도의 지도이념 내지 기본사상이기도 하였다.

화랑도 연구가에 의하면 화랑단(花郎團)이 조직되기 이전에 부족국가 사이에서는 국가수호를 위한 무사단(武士團)의 조직이 있었는데, 진흥왕대(眞興王代)에 이르러 이러한 혈맹조직을 화랑으로 개편하여 민족중흥의 계기로 삼고, 국선(國仙) 화랑(花郎)도 남자로 삼은 것이다. 그러므로 영랑(永郎) 아래의 낭가(郎家)는 진흥왕대에 와서 호국적 성격을 띤 낭가(郎家)로 변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랑(永郎)·술랑(述郎)·남랑(南郎)·안상(安詳) 사선(四仙)이 실제로 무사화랑(武士花郎)으로 활약하였던 기록은 찾을 수 없고, 다만 전설적 인물로만 다루어지고 있어, 진흥왕대 이후의 화랑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신라 사선이란 화랑도 조직 이전의 선가(仙家)에 명망이 높았던 선인(仙人)들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²¹⁾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도교는 본래 신선사상을 근간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한국 고유의 신선사상과 습합(習合)하기가 용이했다. 또 통일신라 이후 당나라와의 내왕이 빈번해짐에 따라 중국 도교와의 접촉이 깊어지면서 도교의 내단(內丹) 수련법도 도입되었다. 특히 유당학인(留唐學人)들이 중국의 수련적인 도교를 도입한 이후,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쳐 그 일부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20) 車柱環, 「韓國 道教의 共同體觀」, 15-6쪽 참조

21) 최 삼룡, 같은 책, 398쪽

IV. 대순사상의 신선사상

1. 인간개조

1) 타력적 방법

대순사상의 인간개조(人間改造)는 도(道)에 합당한 인간으로의 변화를 추구한다. 인간개조를 통한 지상신선의 실현이라는 대순사상의 목적을 비추어 볼 때, 인간개조는 지상신선이 될 수 있는 존재로의 변화를 말한다. 타력적(他力的)인 방법이란 상제께서 신명에게 명을 내려 인간을 개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경』에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샷틈없이 도수를 짜 놓았으니 제 한도에 돌아 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또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의 뱃속에 출입케 하여 그 체질과 성격을 고쳐 쓰리니 이는 비록 말뚝이라도 기운을 붙이면 쓰임이 되는 연고니라. 오직 어리석고 가난하고 천하고 약한 것을 편이하야 마음과 입과 뜻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죄를 조심하고 남에게 척을 짓지 말라”²²⁾라고 하였다. 인간은 마음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氣)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가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기(氣)는 인간의 정신적·육체적 상태를 변화시키고 결정하는 중요한 힘이다. 기는 우주에 가득 차 있으며, 천지만물에 내재되어 있다. 『전경』에 “천지에 신명이 가득 차 있으니 비록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를 것이며 흙 바른 벽이라도 신이 옮겨가면 무너지나니라”²³⁾라고 하였듯이, 신(神)은 일종의 기(氣)이다. 신은 인간의 생사뿐만 아니라 천지만물의 존재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인간에게 신이 떠났다거나 기가 없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신과 기는 생물에게는 생명력을 주며, 사물에게는 사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이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신명은 인간의 육체를 마음대로 왕래하면서 인간의 체질과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체질과 성격의 변화는 인간개조(人間改造)를 말하며, 신선이 될 자격을 소유한 인간으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22) 『전경』, 교법 3장 4절

23) 『전경』, 교법 3장 2절

2) 자력적 방법

인간개조의 자력적(自力的) 방법은 수도(修道)이다. 수도는 무자기(無自欺)를 근본으로 해야 한다. 수도는 심신(心身)을 침잠추밀(沈潛推密)하여 상제를 영원히 받드는 정신을 모아서 단전(丹田)에 연마하여 영통(靈通)의 통일을 목적으로 공경(恭敬)하고 정성(精誠)하는 일념(一念)을 끊임없이 간직하여 지성(至誠)으로 소정(所定)의 주문(呪文)을 봉송(奉誦)해야 한다.²⁴⁾ 여기서 단전(丹田)이란 기(氣)가 모여 단(丹)이 이루어지는 자리를 말한다. 단(丹)이란 글자 그대로 ‘붉다’는 의미이다. 그렇다고 단편적으로 붉다는 색깔의 형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붉은 기운의 생명을 뜻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붉은 것이 곧 생명인 것이다. 생명체는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생명은 볼 수 없다. 생명체를 봄으로써 생명을 느낄 수 있을 따름이다. 단(丹)도 그러한 차원에서 인식되어야 한다. 단(丹)의 붉은 의미를 몸 속에 흐르는 피와 연관 지으려는 경우도 있으나, 피는 어디까지나 생명체의 물질적 요소에 불과하다. 물질이 아닌 근본적인 생명력, 이것이 단(丹)의 정체이며 의미이다. 단(丹)은 생명체가 아니라 생명인 것이다.

단전은 단(丹)이 모이는 자리, 단이 작용하는 자리, 단이 생겨나는 자리이다. 단전은 신체 중 보통 배꼽 아래 4-5cm쯤에 위치한 기해(氣海) 부위를 말하는데 하단전(下丹田)이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적인 단전 부위이며, 상체로 거슬러 올라가서 가슴의 중앙 오목한 곳에 있는 중단전(中丹田)과 코 위 양쪽 눈썹 사이에 있는 상단전(上丹田) 등 세 부위가 있다. 그런데도 단전 부위라 하면 하단전을 우선하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단전 중심의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인간이 성장함에 따라 감정적 기능이 발달하고 이성적 사고를 지남에 따라 하복부를 중심으로 중단전·상단전이 발달하는 것이다. 인간을 단(丹)의 존재라고도 한다. 이성을 지닌 머리는 역시 밝은 태양을 향해 있고 육체를 지탱하는 발바닥은 땅을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음과 양의 조화를 가장 균형 있게 작용시켜 완성적 존재를 향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므로 상단전·중단전·하단전은 곧 완성의 형이상학적 요소인 것이다. 이러한 단전 부위는 인간만이 지닌 것이다.²⁵⁾

24) 『대순진리회요람』, 18쪽 참조

단전호흡(丹田呼吸)은 단전 부위에 단(丹)을 작용시키기 위한 호흡법을 말한다. 단전이란 오직 호흡의 방법만을 통해서 강화되는 것이며, 그것을 전제로 한 호흡을 단전호흡이라고 한다. 만약 같은 호흡이라도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일반 동물처럼 숨을 쉬는 것은 단전호흡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즉 일반호흡은 물질인 육체가 육체적 생명을 위한 물질을 들이마시기 위한 형이하학적인 호흡이다. 산소와 수소를 들이마시는 호흡을 물질호흡이라고 한다. 원소 자체가 물질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숨을 쉰다는 것은 산소를 들이마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차원의 범주에 속한다. 육체는 물질이다. 그러므로 같은 물질인 산소나 수소를 필요로 한다. 그러한 바탕 위에 있는 형이상학적인 생명력은 역시 물질이 아닌 생명력을 필요로 한다. 바로 이것을 보충해주는 호흡이 단전호흡이다. 일반호흡이 산소나 수소 따위를 들이마시는 공(空)의 호흡이라면 단전호흡은 그것을 벗어난 기(氣)의 호흡인 것이다. 보통 폐활량이 크게 가슴으로만 쉬는 숨은 공의 호흡이고, 단전 부위에 작용하는 호흡은 기의 호흡이다. 기(氣)는 대기권 안팎을 가리지 않고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해 있는 것이다. 만약 기(氣)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물질 자체도 존재하지 않으며, 대기권 밖의 달이나 흑성은 물론 우주 자체도 존재할 수 없다. 기(氣)란 존재다. 그러므로 기(氣)의 호흡(단전호흡)은 존재의 호흡이며, 개체적인 인간을 기(氣)를 통해 우주와 일치시키는 것이며, 신인일치(神人一致)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²⁵⁾

대순사상은 수도에 있어 단전(丹田)에 관한 언급은 있지만, 단전호흡(丹田呼吸)에 대한 거론은 전혀 없다. 이것은 주문봉송(呪文奉誦)이 단전호흡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도방법이기 때문이다. 주문을 봉송할 때 상제를 영원히 받들려는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여 단전에 연마하면 저절로 단전호흡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대순사상의 주문봉송은 단전호흡 이상의 위력을 지니고 있다. 주문봉송은 수도(修道)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주문이란 반복하여 암송(暗誦)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주술적(呪術的)이며 신비로운 언어(言語)이자 우주의 진리를 나타내는 음성(音聲)이다. 『전경』에 “전쟁사를 읽지

25) 홍 태수, 『丹의 實象』 (서울: 동서문화사, 1985), 28-31쪽 참조

26) 앞의 책, 32-4쪽 참조

마라. 전승자의 신은 춤을 추되 패전자의 신은 이를 가나니 이것은 도를 닦는 사람의 주문 읽는 소리에 신응(神應)되는 까닭이니라”²⁷⁾고 하였듯이, 주문을 통해 인간은 신과의 영적(靈的) 교류도 가능하다.

대순사상에는 여러 가지 주문이 있으나, 여기서는 태을주(太乙呪)를 통해 주문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태을주를 구축병마주(驅逐病魔呪)라고도 한다. 태을주를 외우면 병마(病魔)가 침범하지 못한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충남 비인(庇人) 출신인 김 경훈(金京訃)이 오 십년 공부로 태을주를 신명(神明)으로부터 얻을 때, 그 주문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리라는 명(命)을 받았다.²⁸⁾ 그는 조선(朝鮮) 선조(先祖) 때 사람으로서 해방 후에 김 경소(金京訴)라고 알려지기도 하였다. 그는 50년간의 도통공부(道通工夫)를 하면서 모든 주문들을 사용해 보았지만 효험을 얻지 못하다가 구축병마주(驅逐病魔呪)인 ‘흠리치야도래 흠리함리 사바아’를 외우면서부터 비로소 공부가 열렸다. 이때 신명으로부터 계시(啓示)가 있었는데, 이 주문의 첫머리에 ‘太乙天上元君’을 붙여 외우고, 이 주문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리라는 내용이였다.²⁹⁾ 그러나 그는 이 주문으로도 완전한 도통을 하지 못하였다. 상제께서는 천지공사(天地公事)를 하실 때, 김 경훈이 받은 태을주의 첫머리에 ‘흠치흠치(吡哆吡哆)’를 첨가하여 인류를 구제하는 주문으로 사용하도록 하셨다고 전해진다. 태을주를 외우면 자연의 힘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한다. 상제께서 화천(化天)하실 때 이 주문을 외우셨는데, 화천하신 직후에 갑자기 붕계 구름이 사방을 덮더니 뇌성벽력이 일고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화천하실 때 계셨던 집의 지붕으로부터 서기가 구천(九天)에 통했다고 한다.³⁰⁾ 이 사실에서 태을주의 신령(神靈)한 힘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태을주는 병마(病魔)를 쫓아주고 우주를 움직일 수 있으며, 전 인류를 구제할 수 있는 신비한 주문이다.³¹⁾

27) 「전경」, 교법 2장 23절

28) 「전경」, 교운 1장 20절 참조

29) 李 康五, 「한국신흥종교총람」, 한국신흥종교연구소(서울, 대흥기획, 1992), 37쪽 참조

30) 「전경」, 행록 5장 35절 참조

31) 拙稿, 「道通眞境의 實踐的 背景」, 「大巡思想論叢」 제5집(大巡思想學術院, 1998), 593- 597쪽 참조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인간개조를 위한 수도의 중요한 요소인 주문봉송은 단전호흡 이상의 신비성이 있다. 주문봉송에 집중하면 저절로 단전호흡이 이루어지며, 주문은 단전호흡이 인간의 체질을 개선시키는 것 이상으로 그 효과가 있다. 이때 반드시 상제의 진리를 믿고 상제를 일념(一念)으로써 받들려는 정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신이 없이 주문을 봉송한다면 어떠한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단순히 단전호흡을 하는 것도 인간의 육체적인 체질 변화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불로장생의 지상신선이라는 목표에 다다를 수는 없는 것이다. 대순사상의 주문은 인간을 신앙적으로 변화시키고 신과의 영적 교류를 통해 도에 통하게 하여 대순사상이 추구하는 지상신선실현을 가능케 한다.

2. 지상신선실현

영혼이 불멸한다는 믿음은 세계 여러 민족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순사상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데, 즉 사람에게에는 혼(魂)과 백(魄)이 있어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神)이 되어 후손들의 제사를 받다가 영(靈)도 되고 선(仙)도 된다. 백은 땅으로 돌아가서 사대가 지나면 귀(鬼)가 된다.³²⁾ 이것이 대순사상의 영혼관(靈魂觀) 또는 사후관(死後觀)이다. 본래 영혼이 불멸하다는 것은 정신의 불사(不死)를 의미한다. 정신이 불사(不死)할 수 있다면 육체도 불사할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사후관(死後觀)과 함께 불사관(不死觀)을 주장하고 있다. 사후관과 불사관이 동시에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은 교리(教理)의 모순을 의미하지만, 대순사상은 후천개벽(後天開闢)이 완전히 이루어진 시점(始點)에 따라 그 이전은 사후관 그 이후는 불사관을 주장하는 것이다. 대순사상의 불사관(不死觀)은 지상신선사상(地上神仙思想)이며 지상천국건설(地上天國建設)의 실현을 의미한다.

신선은 대순사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이다. 신선은 인간이 도달하고자 하는 최고의 경지로서 초월적인 존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도교의 신선

32) 「전경」, 교법 1장 50절 참조

사상은 속세를 떠나서 선계(仙界)에 살며 젊음을 유지한 채 장생불사한다는 신선의 존재를 믿고 신선이 되기를 바라며 추구하는 사상을 일컫는다. 그러나 대순사상에서 추구하는 신선은 도교적 신선이 아니라 지상신선(地上神仙)으로 지칭되는 특유의 신선을 말한다. 대순사상의 신선사상은 속세를 벗어나지 않고 현실사회에 머물면서 상제의 가르침에 따라 수도(修道)를 통해 신선의 경지에 다다르려는 것이다. 즉 지상신선은 대순사상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세계인 지상천국을 실현하는데 적합한 사람을 말한다. 대순사상의 신선은 신인조화를 이룬 존재이며 도통한 존재를 가리킨다.

1) 신인조화의 경지

신선은 신인조화(神人調化)를 이룬 존재이며, 신선실현은 신인조화의 경지를 이루었다는 것을 말한다. 주지하다시피 신인조화란 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이다. 대순사상에서 신은 인간이 죽어서 변화된 존재로서 천지만물의 존재가치를 결정하는 근원이 된다. 『전경』에 “천지에 신명이 가득 차 있으니 비록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를 것이며 흙 바른 벽이라도 신이 옮겨가면 무너지나니라”³³⁾라고 하였다. 신은 천지만물에 내재(內在)하여 존재근거를 제공한다. 다시 말하자면 천지만물은 신과 결합함으로써 존재할 수 있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인간에게 신이 내재해 있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며, 인간에게 신이 떠났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신은 진리에 지극한 존재로서 신인조화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는 인간의 모든 일에 관여하여 인간의 일을 결정하지만, 신인조화의 결과로 인존(人尊)이 실현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대순사상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인간은 인존(人尊)이다. 인존이란 천·지·인 삼계에서 인간이 주체가 되어 모든 일을 관장하고 결정한다는 것이다. 인존시대 이전에는 신이 중심이 되어 신의 의지에 따라 인간의 일이 결정되었으나, 인존시대 이후에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 인간의 의지에 의해 삼계(三界)의 모든 일이 결정된다. 『전경』에 “천존(天尊)과 지존(地尊)보다 인존(人尊)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人尊時代)라”³⁴⁾고 하였다. 천존과 지존이란

33) 『전경』, 교법 3장 2절

신이 하늘과 땅이라는 영역에 머물면서 권능을 행사하고 인간들의 숭배를 받는다는 뜻이고, 인존은 신이 인간의 영역에 거처하면서 권능을 행사한다는 의미로서 인간은 신이 머무는 거처라는 말이다. 신의 주인이 곧 인간인 것이다. 인존이 실현되면 인간은 지혜가 밝혀져 과거·현재·미래와 삼계를 통달할 수 있으며, 병·고통·생사를 초월하여 장생(長生)하는 신선이 될 수 있다. 인존시대에는 인간이 숭배하였던 신이 오히려 인간을 섬기게 된다. 인존시대란 지상신선실현이 된 이상시대인 것이다.

2) 도통의 경지

신선은 도통한 존재이며 신선실현은 도통의 경지를 일컫는다. 도통은 인간 본래의 청정(淸淨)한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본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자기(無自欺)를 근본으로 마음을 닦고 성품을 연마(鍊磨)하고 자신의 기질(氣質)을 단련하여야 한다. 또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의 대순진리를 힘써 닦고 온갖 정성을 다하여 도가 곧 나요 내가 곧 도라는 경지를 올바르게 깨달아 환하게 도에 통하게 되면, 삼계를 꿰뚫어 볼 수 있게 되고,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아 불가능한 일이 없게 되는데, 이것이 영통(靈通)이며 도통인 것이다.³⁵⁾

도통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자. 도통의 방법은 곧 신선이 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도통은 자신의 마음을 거울과 같이 닦아서 진실하고 정직한 인간의 본질을 회복했을 때 이를 수 있는 경지이다. 도통은 수도를 통해 가능하다. 수도란 인륜을 바로 행하고 도덕을 밝혀나가는 일이다. 수도의 목적은 도통에 있다. 수도를 바르게 하지 못하면 도통은 불가능하다. 도통은 자신의 수도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지 물품을 수수하듯이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 도통은 선후(先後)의 차등(差等)이 있을 수 없다.³⁶⁾ 도통은 오직 각자의 수도 정도에 따라 유·불·선의 도통신들과 각 성(姓)의 선령신들의 공평한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다.³⁷⁾

34) 「전경」, 교법 2장 5절

35) 「대순진리회요람」, 9쪽 참조

36) 「대순지침」, 37-8쪽 참조

37) 「전경」, 교운 1장 33·41절 참조

선천세계에서도 수도를 한 사람들이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그런데 도통을 했다는 사람을 찾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도통은 각자의 수도 여하에 따라 누구나 공평하게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천세계에서 유교와 불교는 아주 제한적으로 도통이 가능했고, 도교에서는 음해하는 자로 인하여 도통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도통을 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원한을 품게 되었다.

상제께서는 이러한 도통의 장애요인을 모두 없애고, 누구나 수도의 정도에 따라 공평하게 도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³⁸⁾ 결국 인간은 누구나 상제께서 펼쳐 놓으신 도를 믿고 수도함으로써 도통할 수 있다. 도통은 신선이 되는 필수 조건이다. 신선은 생사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이다. 신선은 곧 도통한 자를 일컫는다. 대순사상의 신선은 속세를 떠나서 수행하거나 불로초와 같은 신약(神藥)을 복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제의 도를 믿고 따름으로써 가능하다. 즉 신선은 대순사상이 요구하는 도덕적·신앙적 완성자를 말하며, 이러한 완성은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상신선(地上神仙)이라고 하는 것이다.

VI. 결론

인간이면 누구나 영생(永生)을 바란다. 이러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예로부터 인간들은 무수한 장생술과 건강법을 고안해 왔으며, 오늘날에도 이 문제는 생명과학의 과제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다. 신선(神仙)은 불로장생의 존재이다. 고대의 한국이나 중국 사람들은 신선(神仙)이 되면, 천지와 더불어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신선은 인간 초월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신선도를 배우거나 신선이 가지고 있는 신약을 찾아 복용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 무병장수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이것이 도교적인 신선사상의 중심 내용이다.

대순사상의 신선사상에서 도교적 요소를 찾아 볼 수 있다. 신선사상의 본류(本流) 문제를 다루면서 삼신산(三神山)의 유래에 대한 견해가 다양하다고

38) 「전경」, 교운 1장 34·40절 참조

언급한 바 있다. 삼신산은 중국에서는 발해 가운데 있다고 하였고, 한국에서는 백두산에 있다고 하거나 금강·지리·한라산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전경』에는 상제께서 탄강하시어 활동하시던 전라북도 고부군에 예로부터 삼신산(三神山)이라 일컬어지는 봉래산(蓬萊山)·영주산(瀛洲山)·일명 신선봉(神仙峰)인 방장산(方丈山)이 위치해 있다고 한다.³⁹⁾ 이 이외에도 대순사상의 신선사상과 관련된 도교적 요소는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어느 탕자의 이야기⁴⁰⁾나 신선 여 동빈(呂洞賓)⁴¹⁾에 관한 이야기 등이 이러한 부류에 속한다.

대순사상의 신선사상에 도교적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의 신선사상과 차별화 된다. 도교의 신선사상이 신선으로부터 신약(神藥)을 얻거나 직접 단약(丹藥)을 제조하여 복용하고 장생술의 수련을 통해 신선이 되려고 하는 것에 비해, 대순사상의 신선사상은 도덕적·신앙적인 완성자로서의 신선을 추구한다. 대순사상은 수도(修道)를 통한 신선실현을 주장하고 있다. 수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주문봉송이다. 수도자는 주문봉송시 상제의 진리를 믿고 상제를 일념(一念)으로 영원히 받들려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수도를 통해 인간은 신인조화를 이루고 도에 통하여 신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신선실현은 신인조화와 도통의 경지에 오른 상태이다. 대순사상에서 신선은 지상신선(地上神仙)을 지칭하는데, 이것은 시간적으로는 현재, 공간적으로는 현실세계에서의 신선을 의미하는 것이다.

39) 『전경』, 행록 1장 2절 참조

40) 『전경』, 교법 3장 16절 참조

41) 『전경』, 예시 61절 참조

【참고문헌】

『전경』

『대순지침』

『대순진리회요람』

『莊子』 『淮南子』

『靑鶴集』

『大巡思想論叢』 5집(大巡思想學術院, 1998)

李 康五, 『한국신흥종교총람』, 한국신흥종교연구소(서울: 대흥기획, 1992)

이 능화(이 종은 역), 『조선도교사 역주』 (보성문화사, 1992)

酒井忠夫 外(崔俊植 옮김), 『道敎란 무엇인가』, 종교문화연구원종교학 총서 1(서울: 민족사 1990)

車 柱環, 『韓國의 道敎思想』 (서울: 동아출판공사, 1986)

韓國道敎思想研究會 編, 『道敎와 韓國思想』 (서울: 亞細亞文化社, 1994)

韓國道敎思想研究會 編, 『韓國道敎文化의 位相』 (서울: 亞細亞文化社, 1993)

韓國道敎文化學會 編, 『道家思想과 韓國道敎』 (서울: 國學資料院, 1997)

홍 태수, 『丹의 實象』 (서울: 동서문화사, 1985)